국어를 일관되게 푸는 방법, 〈국어풀이전략〉

언어와 매체 공략법 편

1. "~하는 방법" → 방법론!

어미와 접사 구별 방법, 관형사와 형용사 구별 방법 등 문제가 자주 나오는 Point들에 대해 "~을 하는 방법"을 체계화하여 방법론을 구축해두었습니다.

2. 주제별 정답 및 실수 Point 정리

주제별 정답 Point와 실수를 유발하는 Point에 대해 정리해 두어, 시험장에서의 헷갈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3. 고난도 주제별 맞춤 방법론

본용언/보조용언, 규칙/불규칙 활용 등 고난도로 꾸준히 출제되는 주제를 일정한 사고과정에 따라 타파할 수 있는 맞춤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4. 암기해야 할 예제 수록

각 주제 및 방법론에 해당하는 예제를 충분히 삽입하여,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제에 방법론을 직접 적용해보고, 예외적인 규칙까지도 학습하여 빈틈을 없앱니다.

5. 언매 공부법 및 시험운영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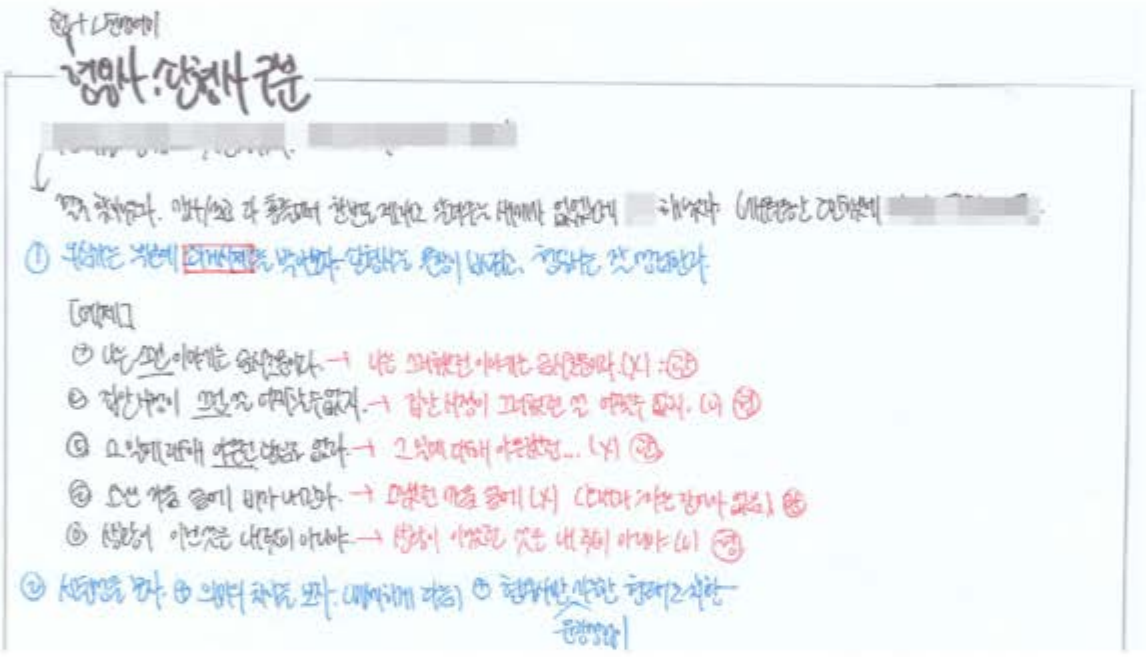
수능 문법의 구성 요소 분석, 문법 지식을 학습하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 시험장에서 언매를 풀 때 가져야 하는 Mind Set, 시험장에서 막힐 때 탈출하는 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국어를 일관되게 푸는 방법, 〈국어풀이전략〉

언어와 매체 공략법 편

1. "~하는 방법" → 방법론!

어미와 접사 구별 방법, 관형사와 형용사 구별 방법 등 문제가 자주 나오는 Point들에 대해 "~을 하는 방법"을 체계화하여 방법론을 구축해두었습니다.



i. 안은문장 vs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구분법 2024 이정제 point

사설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안긴문장 종류 판단 문제 선지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섞여 나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선지에서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다'라고 제시하여 수험생이 안긴문장의 종류 판단에만 집중하게 만든 후, '애초에 안은문장이 아니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 틀렸음'이라는 식으로 정답 Point를 잡는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 난이도가 매우 높을 수 있다.

① 정확하게 암기한 '안은문장을 나타내는 표지'가 등장하는지 확인
② 등장하면 해당 종류의 안은문장. 등장하지 않으면 이어진문장으로 판단
③ 언어적 감각으로 때려 맞추는게 아니라 명시적 표지를 가지고 푸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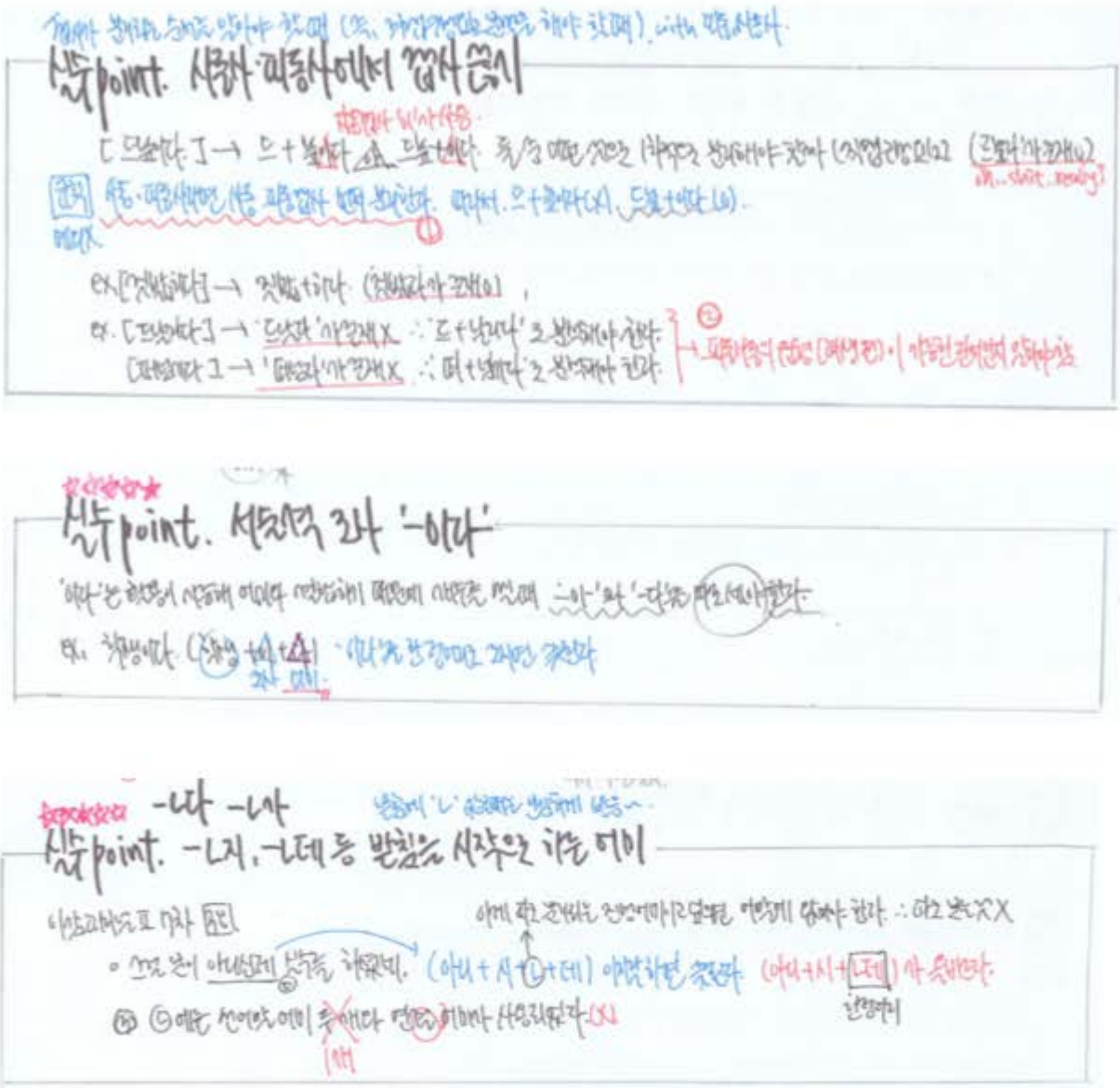
[예제]
1. [그는 가게에서 비싸게 산 과일]관명이 상하지 속상해했다.
'-자'는 안은문장을 나타내는 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어진 문장을 나타내는 표지.

국어를 일관되게 푸는 방법, 〈국어풀이전략〉

언어와 매체 공략법 편

2. 주제별 정답 및 실수 Point 정리

주제별 정답 Point와 실수를 유발하는 Point에 대해 정리해 두어, 시험장에서의 헷갈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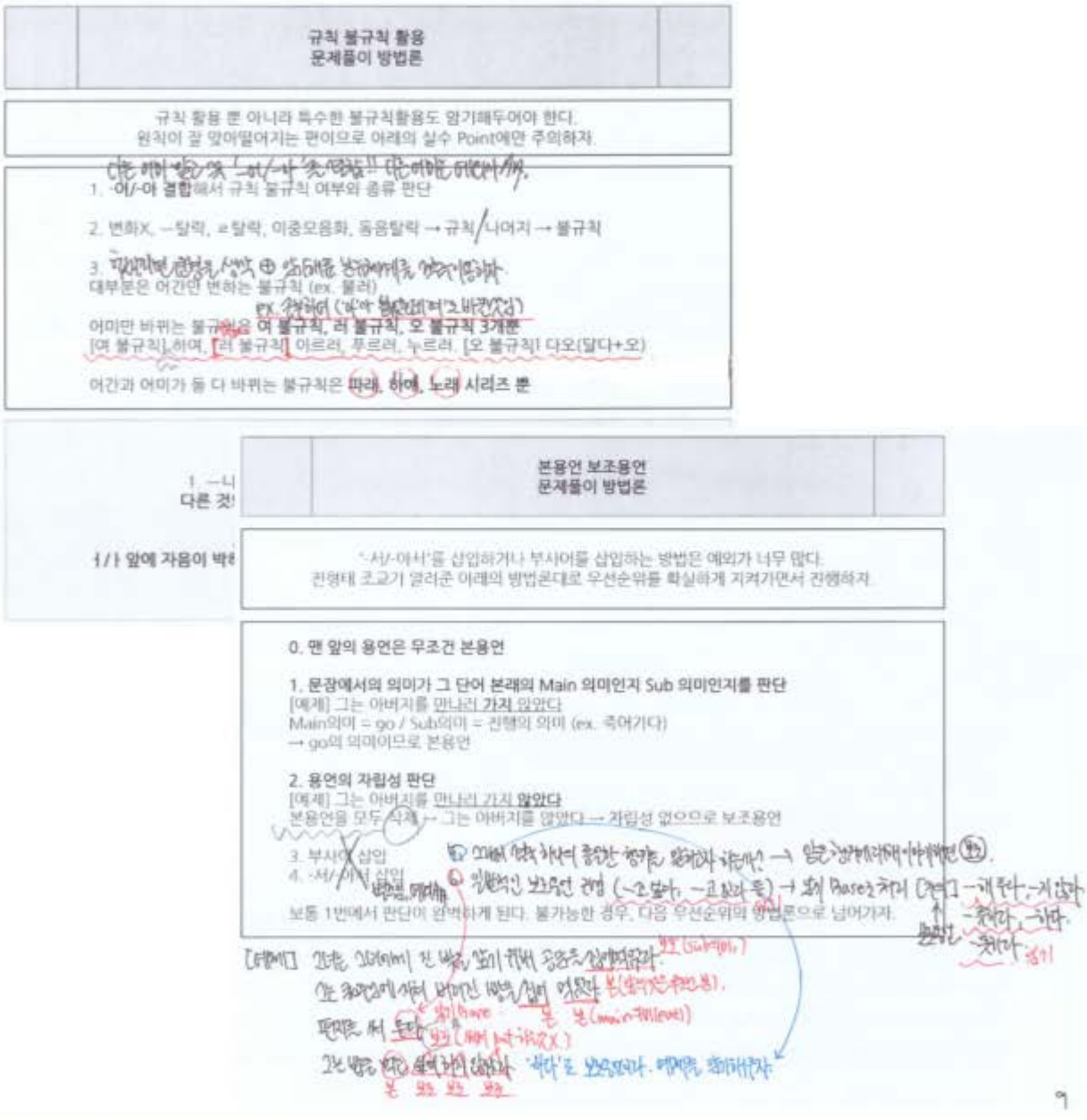


국어를 일관되게 푸는 방법, 〈국어풀이전략〉

언어와 매체 공략법 편

3. 고난도 주제별 맞춤 방법론

본용언/보조용언, 규칙/불규칙 활용 등 고난도로 꾸준히 출제되는 주제를 일정한 사고과정에 따라 타파할 수 있는 맞춤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규칙 불규칙 활용
문제풀이 방법론

규칙 활용 뿐 아니라 특수한 불규칙활용도 암기해두어야 한다.
원칙이 잘 맞아떨어지는 편이므로 아래의 실수 Point에만 주의하자.

1. 어/아 결합해서 규칙 불규칙 여부와 종류 판단

2. 변화X, ㅡ탈락, ㄹ탈락, 이중모음화, 동음탈락 → 규칙/나머지 → 불규칙

3. 대부분은 어간만 변하는 불규칙 (ex. 물러)
어미만 바뀌는 불규칙은 여 불규칙, 러 불규칙, 오 불규칙 3개뿐
[여 불규칙] 하여, [러 불규칙] 이르러, 푸르러, 누르러, [오 불규칙] 다오(달다+오)

어간과 어미가 둘 다 바뀌는 불규칙은 파래, 하얘, 노래 시리즈 뿐

본용언 보조용언
문제풀이 방법론

'-서/-아서'를 삽입하거나 부사어를 삽입하는 방법은 예외가 너무 많다.
친형태 조교가 알려준 아래의 방법론대로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지켜가면서 진행하자.

0. 맨 앞의 용언은 무조건 본용언

1. 문장에서의 의미가 그 단어 본래의 Main 의미인지 Sub 의미인지를 판단
[예제] 그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
Main의미 = go / Sub의미 = 진행의 의미 (ex. 죽어가다)
→ go의 의미이므로 본용언

2. 용언의 자립성 판단
[예제] 그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
본용언을 모두 삭제 → 그는 아버지를 않았다 → 자립성 없으므로 보조용언

3. 부사어 삽입
4. '-서/-아서' 삽입
보통 1번에서 판단이 완벽하게 된다. 불가능한 경우, 다음 우선순위의 방법론으로 넘어가자.

국어를 일관되게 푸는 방법, 〈국어풀이전략〉

언어와 매체 공략법 편

4. 암기해야 할 예제 수록

각 주제 및 방법론에 해당하는 예제를 충분히 삽입하여,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제에 방법론을 직접 적용해보고, 예외적인 규칙까지도 학습하여 빈틈을 없앱니다.

[예제]

1. 파랗다 + 어미, '-ㄴ'의 경우 ㅎ탈락이므로 어간만 바뀌는 불규칙에 해당한다. '파래'와 혼동하지 말자.
2. 치러(치르+어) → '치르러' 아니다! 어미 그대로이므로 'ㅡ 탈락 규칙활용'에 해당
3. 골라(고르+아) → 어미 그대로이므로 'ㅡ탈락 규칙활용'에 해당)
4. ③선지] '변화하다'는 '변화하게', '변화하고'로 활용하므로 '여 불규칙' 활용 용언에 해당하지 않는군 → '-게', '-고'와 결합할 때는 규칙활용처럼 보이지만 '-어를 결합시켜보면 '여 불규칙'에 해당한다. 문제에서 악질적으로 준 예시에 낚이지 말자. 방법론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이 '-아/-어'를 결합시키는 것이므로 방법론을 따라 진행하면 된다.
5. 선생님은 눈이 → 눈이 [관형] ∴ '르'불규칙, '러'불규칙 (X)인 것에 주의하자
으변칙과 러 불규칙을 혼동하지 말자 = 대신에 바꿈 = 대신 바꿈~

xi. 기타 암기할 Detail 정리

1. [대명사의 예시] 우리, 나, 너, 그, 그녀, 우리
2. '여러 군데 있다' → '여러'는 관형사, '군데'는 의존명사
3. '멀리는 가지 마라' → '는'은 격조사로 바꿀 수 없다. 왜? 앞이 부사니까. '멀리에? 멀리까지는?' 이 ♥ 하면 안된다. 직관이 아니라 원칙대로 해야 한다.
4. '말을 곧이를 듣지 않는다.' → 격조사의 보조사적 용법
5. 피로를 푼다. 학교가 큰지 몰랐다. → '-다'와 '-지'가 아니라 '-ㄴ다, -ㄴ지'가 어미이다. ㄴ까지 포함해야 한다.
6. 회송하다 → '회송'은 특정 동사로 분류 不. '-하다'와만 결합하는 특수한 경우.
7. 감사하다 → '감사'는 명사이다. (ex. 감사인사, 감사편지)
8. 산에 오르다 → 동사이지만 산에 대해 서술하는 것은 아니다. 산을 오르는 주어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다. 반면 '산이 높다'는 '산'에 대해 서술하는 형용사이다.
9. '나는 학생이다'의 '은'과 '저 연포 대게?'의 'ㄴ'은 서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기에 동시에 붙어도 문제없는가, → (X).
어떻게 있기에 하지만 처음 한번에 서로 연결지 않아야 한다. '나는 학생이다, 저 연포 대게?' 가능. ∴ 어떻게 X
10. '선생님, 어떻게 학교에 오셨나요?' → 장소에 어떻게 가다 = ⑤
'대학에 오셨군요' → 어떤 자리나 직위로 참여하는 사람에 =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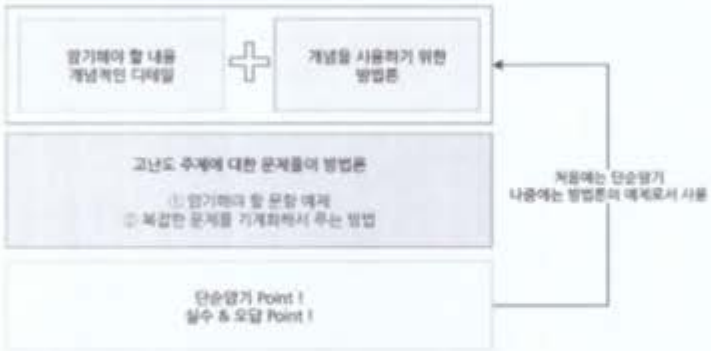
국어를 일관되게 푸는 방법, 〈국어풀이전략〉

언어와 매체 공략법 편

5. 언매 공부법 및 시험운영 방법

수능 문법의 구성 요소 분석, 문법 지식을 학습하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 시험장에서 언매를 풀 때 가져야 하는 Mind Set, 시험장에서 막힐 때 탈출하는 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수능 '언어와 매체' 과목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주제에 대한 지식과 방법론이 아래와 같은 체계를 따라 정리되어있다.



i.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테일이 아니라 거시적인 시선과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말자.

문법 Mind Set

1. 직관으로 풀지 않으려고 노력하자. 직관에 기반한 풀이는 점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
"아무 이유 없이 그럴 것 같다"는 식으로 풀면 높은 확률로 틀린다. **원리원칙과 문제조건**에 의해 논리적으로 풀어야 한다.
(학창시절 경험상 자연스럽게 "풀기 어려운 시험지에도, 그럴듯한 오답선지 나중에 공부를 시키는 것을 고려, 최후제로 마련하자.)
2. 어? 하는 순간! 방법론과 딸린 예제를 바로 꺼내 쓰자. 이를 위해서 방법론과 예제를 정확히 암기해두자.
특히, **고난도 주제의 경우 미리 준비해둔 방법론에 따라 해결하자.**

3. **문제에 덤벼들기 전에 문제 구조와 선지를 보고 목적을 먼저 확인하자.**

4. **제시문을 준 경우 선지를 읽으면서 동시에 분석하지 말자.** 나도 모르게 선지에 낚이게 된다.

5. 꼭 5개의 선지를 모두 확인하자!
답이 확실히 결정되었으면 모든 선지를 완벽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확인은 모두 하자.
의외로 실수를 발견할 수도 있다.

6. **[지문]에 딸린 문제보다 지문 없는 문제를 먼저** 시도하자. 워밍업 문제의 역할을 한다.

7. **[지문]에서 Case가 많이 등장하는 경우 Case를 빡세게 나눈다.** (예: 시점, 상황, 기준에 대해 언급)
문제를 풀다가 지문을 다시 서치해야 할 경우 다른 Case와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매우 잦다.
대충 눈으로 보고 풀지 말고 미리미리 Case를 명확하게 구분해두고 풀자. + 지문의 스토리를 상상으로 읽지 말자. 결국 표에 나온다!

8. **지엽적인 부분은 굳이 그 부분을 완벽히 판단하지 않아도 답 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쉽, 어려운 시간)
① 한 단계 큰 범주에서 판단
② 덩어리 중 다른 확실한 것을 판단

9. <보기>를 먼저 결정하자. 문제를 주어 그것이 중요한 시험장의 유형.